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장성형 복지 모델 ‘주목’

등록금 지원·초·중·고 입학 축하금
노인 일자리 확대 경제 활동 지원
연 30만원 ‘효도권’·택시 바우처도

장성군이 민선 8기 핵심 국정으로 추진 중인 ‘장성형 복지 모델’이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장 호응이 높은 시책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다. 군은 전남 최초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 총 8학



마을 경로당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기분의 대학 등록금 실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30세 이하

대학 재학생이다. 장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수당(꿈키움바우처)’도 도입했다. 9-13세 청소년에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는 서점, 문구점, 안경점, 예체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 축하금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새출발을 격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어르신 복지’ 확대도 이목을 끈다. 장성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효도권’ 지급액을 연간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효도권’ 내 일정 금액을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건강권’도 추가 도입했다. ‘효도권’은 이·미용, 목욕탕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성 고유의 복지정책이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시간도 3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려 노후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택시 요금 바우처 포인트’를 연간 14만4천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도 시행 중이다. 여가 공간인 경로당 지원도 눈에 띈다. 장성군은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 총 62곳의 냉방 기기를 교체했다. 등록 경로당 347곳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26곳에도 운영비, 부식비, 양곡 등을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에 임시 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심하고 촘촘한 ‘장성형 복지 모델’을 완성해 청소년이 꿈을 펼치는 희망찬 도시, 어르신이 활기찬 행복찬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자만 여수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 기대감 고조

IUCN 봉전리 현장실사 마무리
53종 물새 서식...내년 최종 결정

여수시가 여자만 여수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신청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하면서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진행한 현장실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실사는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II)’ 확대 등재 신청에 따른 것으로, 여자만 여수갯벌이 대상에 포함돼 국제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여수시는 여자도와 봉전리 갯벌 실사 과정에서 지역환경운동연합,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관리 현황을 설명하며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갯벌은 유산구역 3천881ha, 완충구역 1만 2천581ha 규모로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 9종과 도요물떼새 15종을 포함한 53종의 물새가 서식하는 생태적 요충지다. 다양한 해양 생물과 법정보호종 6종이 확인됐으며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장실사 결과는 서류심사와 패널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되며,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갯벌이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남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는 2021년 1단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여수갯벌을 비롯해 전남 무안·고흥, 충남 서산 갯벌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계자 바스티안 베르츠키(가운데)와 테레스 싱 베인스(왼쪽)가 여수시 여자도와 봉전리 갯벌에서 현장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여수시 제공>

담양, 수해 피해 주민 지원
상수도 요금 50% 감면

담양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2025년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2천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3천만원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희 물순환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시, 구룡산 관광단지 성과 공유
정례회 개최... 유공 직원 표창
K-POP 페스티벌 등 안전 주문

광양시가 10월 정례회를 열고 시정 성과 공유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에서는 시정 발전 유공 직원 11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은 9일 주요 성과로 ▲구룡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및 4년 연속 A등급 최우수 병원 지정 등을 소개했다. 정 시장은 구룡산 관광단지 조성 관련 “207만㎡ 부지에 3천700억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도심 속 체류형 관광 단지가 조성된다”며 “관계기관 설득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고 격려했다. 또한 신규 공직자 99명의 적용 지원을 당부하며 “전국적으로 공직 이탈 현상이 많은 만큼 선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월 예정된 K-POP 페스티벌, 전통술불이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말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10월은 4분기의 시작”이라며 “연말까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광양=양홍열 기자



유럽한인총연합회 대표단
‘노벨문학도시 장흥’ 방문

장흥군은 “최근 유럽 30여개국 한인회를 아우르는 유럽한인총연합회 대표단이 방문해 문화·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장흥군이 스웨덴에서 열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행사에 참가하면서 시작된 인연이 계기가 됐다. 대표단은 장흥군청에서 김성 군수와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화·예술·관광 등 민간 교류 확대 ▲지역 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장흥의 문화와 자연, 치유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드랜드 편백숲,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물관, 통합의료병원 등을 방문해 장흥의 ‘물·건강·치유’ 브랜드를 체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방문은 유럽 한인 사회와 장흥이 문화·경제적 동반자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장흥을 세계 속의 ‘노벨문학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한국 문화와 자연, 전통이 어우러진 장흥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유럽 현지에서 장흥군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구례군 마산면에 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

격리검역실·방사장 3개 등
100억 투입...49마리 수용

구례군은 “최근 마산면 황전리에 건립한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학영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부지 면적은 2만5천744㎡로, 사육곰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격리검역실 1개, 일반 사육실 2개, 사무실 및 교육관 1개, 방사장 3개 등을 갖췄다.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은 국내 최초의 공영 곰 보호시설이다. 군은 곰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시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아온 사육곰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며 “구례군이 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옹담 체취를 목적으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이곳에 입식했으며 군은 앞으로 곰들을 단계적으로 보호시설에 들일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추석 연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오전그린광장에서 대형 율리움을 즐기고 있는 모습(왼쪽)과 순천만습지를 찾은 방문객들이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공연·전통놀이 등 순천 오전그린광장 ‘추석 연휴’ 즐거움 한가득

순천에서 열린 추석 맞이 문화콘텐츠 축제 ‘한가 위드 오천’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5-8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축제는 문화도시 순천의 정체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알리고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장은 연일 많은 인파로 붐비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전통놀이와 대형 율리움 등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은 긴 줄이 생길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한가위의 흥겨움을 나누고 있다. 축제의 핵심은 매일 다른 테마로 구성된 무대 공연이다. 지역 예술인뿐 아니라 대중가수들도 참여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모두가 만족했다”, “공연이 다양해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다”

며 즐거움을 전했다. 7일에는 소리골남도의 ‘애니콘서트-마법의 성’과 이보람, 소찬휘의 무대가, 8일에는 시민 버스킹 경연대회 ‘순천’s 갯벌런트’ 결선과 자두·원슈타인의 공연이 열렸다. 또한 오전그린광장에 설치된 전망루프 올라보 대형 인형은 인기 포토존으로 자리잡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전그린광장을 찾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 추억을 만들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